

호시노재심 뉴스 180 후 2012년 5월 15일 발행



전 증거 공개를 요구하는 대운동을 7·1 도쿄 고등 법원 포위 데모에



4월 20일 재심 기각 탄핵의 도쿄 고등 법원 포위 데모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인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마시(新橋)2-8-16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qq8ued9@dream.ocn.jp URI <http://fhoshino.u.cnet-ta.ne.jp/>

이의심 승리.전증거개시를 쟁취하자

2012년 전국총회의 성공을

3월 30일 도쿄 고등재판소 제 11 형사부, 와카하라 미시키(若原 正樹)재판장은 제 2차 재심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호시노 후미아키씨와 변호단은 분노에 불타 곧바로 이의신청해 새로운 싸움을 개시했습니다. 이번의 재심 기각결정은 세계대공황과 3.11 정세하에서 운동의 발전에 몰린 도쿄고등재판소의 아무런 전망도 없는 폭력적인 결정입니다. 2.5도쿠시마(徳島)형무소 포위데모 지평위에 운동의 비약적인 발전을 쟁취해 호시노씨의 해방을 단호하게 끌어당깁시다.



4월 6일 도쿄 고등재판소에 대해 분노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

새로운 전인민적 대운동을

호시노투쟁의 비약적인 발전은 "모든 증거를 개시하라"의 대운동을 전력으로 추진하는 기운대에 있습니다. 호시노씨는 무죄입니다. 검찰관이 숨기고있는 모든 증거를 개시하게 하면 반드시 호시노씨의 무죄는 명백하게 납니다. 검찰관은 유리한 증거만을 법정에 제출해 다른 증거는 계속 숨겨두고 있습니다. 이현실을 돌파하는 것이 호시노씨 해방의 길을 열수 있습니다. "아시카가(足利)사건"이나 "후카와(布川)사건"등 많은 재심재판을 봐도 모든 증거의 개시가 재심, 무죄의 길을 열었습니다.

"증거개시"는 정의의 요구

증거는 검찰관만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금을 써서 모른것이며 모든 민중의 것입니다. 모든 증거는 진실을 원하는자를 위해 있습니다. 재판소의 역할이 "무고한자를 처벌하지 않는것"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있다면 검찰관에게 모든 증거개시를 하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모든 증거개시"는 호시노씨의 무죄를 명백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노동자,인민의 정의를 지키고 미래를 여는 싸움입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폭넓은 신형을 만들어내서 호시노재심투쟁을 전국으로 확장해 나가자.

"유도" 용인에 분노를

도쿄고등재판소에 의한 재심청구 기각결정은 신증거인 "이츠쿠시마(徳島)감정서"를 부정이기 위해 취소관에 의한 유도를 "유효한 기억환기의 방법"이러는등 그따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츠쿠시마(徳島)교수가 행한 실험에서는 거의 기억을 재현할 수 없는 것은 기억환기의 유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오히려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날조된 흉술을 강요당한 K 씨는 아침식사후 곧바로 취조가 시작해서 끝나는것은 밤 10시, 11시였습니다. 점심도 저녁식사도 취조실에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런것이 매일 40일 이상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런것을 기억한기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억난 것이다 라며 용인.칭찬하고 있습니다. 재판소에 의한 날조된 취조 용인 따위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민의 분노로 타파하자. 2012 년의 전국총회를 6 월 30 일 7 월 1 일의

2 일간 도쿄에서 개최합니다. 7 월 1 일에는 도쿄 고등재판소를 포위하는 대규모 데모를 행합니다. 이것은 2.5 토쿠시마(德島)형무소 포위데모의 지평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대투쟁입니다. 전국총회 7.1 데모에 전국에서 전력으로 모이자.

4.13 스기나미(杉並) 이와이 마코토(岩井 信)주임변호인 강연(요약)

사실을 보지않고 웅변술(rhetoric)로 속이는 기각결정

거듭된 노력하에 증거개시가 다음의 큰 목표

이집회에서 재심 기각결정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너무나 원통하며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 호시노 후미아키씨(星野 文昭)가 말한대로 오히려 이것에 의해 확정판결의 재판소의 이상함이 명백해졌습니다. 거기에는 지금까지의 거듭된 노력이 있었고 금후로 이어집니다. 우선 도쿄 고등재판소는 확정판결이 의거한 증거(K 씨의 범인식별흉술)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제 1 차 재심청구에서 최고재판소가 인정한 것으로 지금까지 거듭된 노력위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제 2 차 재심청구 사이에 몇가지 증거개시를 쟁취해 그중에 호시노씨가 찍혀있는 새로운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다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외에도 제 2 차 재심청구의 신증거에는 1971 년의 시부야(渋谷)투쟁의 "주간 아사히"의 그리비아 아이돌 개세시인과 함께 촬영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모대와 기동대가 대치하고 있는 장면으로 앞쪽에 얼은갈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 찍혀있다. 이것은 K 씨가 구타자의 특징으로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얼은 다갈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하얀 헬멧을 쓰고 있었고 거기에 "반(反)"이라는 글자가 써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선체를 뒤집을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신증거입니다. K 씨가 본 구타자는 호시노씨가 아닌 이사람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시사진에 무죄의 증거

개시 하게한 신증거의 사진에는 호시노씨가 찍어 있었고 헬멧에는 중핵(中核)의 "중"자가 찍혀있었다. 목격증언은 구타자가 "반전(反戰)"의 헬멧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격증언으로 봐서도 호시노씨는 구타자가 아닙니다. 호시노씨를 범인으로 식별흉술을한 K 씨도 당시 호시노씨의 이름을 물었다. 그래서 복장의 색깔에서 호시노씨라고 판단했다고 조서에는 써있다. 그곳의 색깔이 틀린 것은 어찌서일까. 그것은 수사당국이 유노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은 주장해왔다. 그것에 대해 재판소는 진정하게 이문제에 몰두하지 않고 게다가 제일 중요한 헬멧의 글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대답하려 하지 않는다.

상세한 흉술은 "유도"에 의한다

더욱해서 하나더 우리들은 K 의 흉술이 너무나도 상세하고 내강 기억에 바탕을 눈것이 아닌 수사관에게 유도당한 것이라고 입증하기 위해 일본내각의 이즈쿠시마(巖島)선생님에게 의뢰해서 감정인 의견서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에게 구타행위를 하게 하고 후일 기억의 재현을 해본 결과 상세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수가 도쿄 고등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수사관의 기억환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기억재생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흉술의 부자연스러운 상세함을 강조한것은 수사관의 유도를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도쿄 고등재판소는 수사관이 유도했으니까 상세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반론하고 있다. 기각결정이 말하는대로 수사기관이 유도한 것이라면 그것이 호시노씨를 억지로 범인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신증거로서 제출된 사진은 검찰관이 이번에 처음으로 게시한 것입니다. 이사건의 범행후로 보이는 장면에서 호시노씨는 하얗게 보이는 막대기를 쥐고있습니다. 막대기에는 때린 흔적이 없다. 그러나 도쿄 고등재판소는 마음껏 때려도 철파이프에는 흔적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능성론에서 배제했다.

또하나 "화염병을 던져라"라고 시시한 것이 호시노씨인 것으로 되어 그 유죄증거는 호시노씨의 목소리에서 특성했다고 한다. "목소리식별(耳聲証言)"입니다. 목소리식별(耳聲証言)에서 사람을 특성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이츠쿠시마(巖島)선생님의 번역논문을 신증거로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도쿄 고등재판소는 이러한 지견을 근거로 두고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었으니까 문제 없다고. 모든점에서

말의 표현(웅변술 rhetoric)으로 속이고 있는 기각 결정입니다. 제 1 차 재심청구에서는 증거개시는 하나도 개시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몇가지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개시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시하게 해가는 것이 다음의 큰목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거둬온 노력을 소중히 여기며 금후로 이어나가 재심개시결정으로 연결해갑니다.

토쿠시마면회일기

"누구든지 사람답게 살수있는 사회를 아키코와 함께 만들고 싶다"

호시노 아키코(星野暁子)



학생으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들고

4월 25일 맑음 후미야키의 생일인 27일에 맞춰 면회를 실정해서 기각으로부터 한달이 지나시아 면회를 하게되었다. 필시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맞이한 후미야키는 건강하며 상쾌한 모습이였다. "옥사름넘어"를 통해서도 전해진 2.5 토쿠시마(徳島)형무소 포위투쟁을 한 모두의 마음 기각판해의 각지에서 의 가두선전 회화전 4.13 집회 그것들 하나 하나가 후미야키를 크게 지탱하고 있었다. "진달래가 민화실까지 찾아오는 길의 양쪽에 피어 있어서 예뻐"라고 말했더니 "안에는 아직 봉우리아.

안쪽이 추운지도"라는 후미야키 "재심기각 유감스럽네"라고 내가 말했다. "기각되고 나서 벌써 한달이 된다. 꽤 옛날에 있었던것같은 느낌이 들어. 아키코가 말하는데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을 때의 고립감과 비교하면 지금은 유동이 있어서 전혀 늘리다" "각지의 구하는 모임에서도 곧바로 반격의 가누선전에 몰두해주고 있다" "교도(京都)의 이토 요시코(伊藤 美子)씨의 편지에도 몰면서 가누선전에 몰두했다고 써있어서"라고 후미야키는 말했다. 결정문은 "유도"를 인정하고 있다고 내가 말하면 "다른 원죄사건도 유도가 문제가되어 최초의 전면가시화를 호소하고 있는 와중에 유도를 긍정하고 있다. 우리들의 공격에 당해서 내온것이다"라고 후미야키는 말했다. 9월에 이유서를 제출해 증거의 전면개시의 싸움을 보니 폭넓은 진형을 만드는 상황에 해가는것을 전했다. "지금있는 증거만으로도 무죄인것은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해 증거의 전면개시가 필요하다"는 후미야키. "옥사를 넘어서"는 "사진은 전부 먹칠당했으며, 2.5에 관한 것도 먹칠 당하고 있지만 줄거리를 모를 정도는 아니다. 내용은 좋았어. 2.5는 합법적으로 니나 수김지를 생각해서 한 싸움. 단속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는 후미야키. 니시무라(西村)변호사와의 면회도 좋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4월의 토교연락회 주최의 회화전, 집회의 보고와 사진도 왔었다. 이와이(岩井)씨의 이야기가 제일 알기 쉽다. 기각 결정에 반격하는 집회로서는 좋았던 것 같아" 우성(郵政)비정규직 유니언의 사이트 유스케(齋藤 裕介)군이 "우리들 비정규직에게는 희망이 없다. 어디에 희망을 찾냐하면 옥중에 있으면서 투쟁의 메시지를 전하는 호시노씨다"라고 어필 한것을 전했다. "호시노씨의 싸움을 그렇게 말해주는 것은 매우 기쁘다. 호시노의 싸움을 그런식으로 싸워서 그것이 또 다음 싸움을 만들어간다. 탄압 당하면 당할수록 유대감을 강하게 해가는 것이지"라고 후미야키는 말하며 첫날의 면회를 마쳤다.

처음인 생일면회

드디어 27일 25년간 도쿠시마(徳島)에 면회를 다니며 생일에 면회일정을 맞춘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키코가 생일날에 외준 것이 제일의 선물이야. 오늘은 교육적 처우일이라서 일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여유가 있어. 주욱 하루종일 아키코를 생각하며 지내려고해" 도쿠시마(徳島) 구하는 모임으로부터 격려문 전일본 학생지치회 총인합으로 부터의 꽃다발을 보아줬다. 생일에 서로 보내는 말을 주고 받았다. 네쪽은 "우선 건강이지. 건강에 주의해 줘면해. 그리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과 후미야키의 재심,해방을 생취하는 싸움을 하나로 후미야키와 같이해 가고 싶다. 격려문에도 써있지만 이러한 무기징역형을 당하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인간해방을 호소하며 싸우고 있는 후미야키로부터 격려받고 있다. 호시노기 희망이라는 사람은 꽤 있어"라고 이야기했다. "30분인 아키코와의 면회를 몇십배나 크게에서 만나지 못할때도 같이 살고 있다. 최근 내자신이 제일 변한 것이 있다. 시분기에게 빼앗기는 것에서 되찾아 누구나가 사람답게 살수있는 시회를 만드는 힘을 노동자민은 기지고 있다. 그것을 시항하는 중에 아키코와도 모두와노 같이 만들고 있는 풍요로운 깊은 느낌을 맛본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된 것이야.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아키코한테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정도로 감사하고 있어. 1편식으로 사는 것이 내가 나로서 사는 본질을 제일 좋은 형태로 발휘해준다. 또 이키코가 아키코로서 사는 본질을 발휘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후미야키는 말하며 66번째의 생일면회를 마쳤다.